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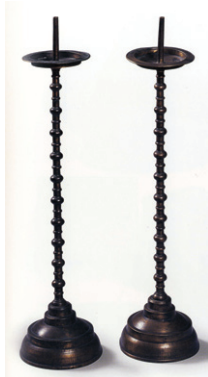


사진 2



사진 3



사진 4

촛대[燭臺] - 의 · 예식용 쌍촛대

燭臺

촛대는 용도에 따라 일상용과 비 일상용, 즉 의 · 예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 · 예식이라고 하면 혼례나 상례, 회갑례 등과 제례 및 종교의식, 기타 중요한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의 행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날에는 의 · 예식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지며, 또한 일상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기물(器物)들이 쓰이게 된다. 같은 촛대라 하더라도 의 · 예식용 촛대는 일상의 외촛대와는 달리 두 개가 짝을 이루는 쌍촛대를 쓴다. 대개 성스러운 이미지나 화려함을 더하는 장식이나 문양을 덧붙여 예술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조명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간절한 염원이나 바람, 축원, 정화, 벽사, 권위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왕실이나 관청에서 행하는 의례에서도 그 중요한 물질적 구성 요소로서 초와 촛대가 포함된다. 그 정형화된 형태를 당시의 의궤류(儀軌類)나 도병(圖屏) 등의 자료에서 여러 건 찾아 볼 수 있다. 사찰에서도 장엄구(莊嚴具)의 하나로써 촛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 웅과 연꽃 무늬로 장식한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 법당에 밝힌 촛불이 무지에서 비롯된 마음의 탐욕을 누르고 진리를 밝히며 그 위에 불심(佛心)을 심고자 하는 중생의 숙원을 담고 있다면, 왕실의 의례에서 사용하는 와룡촛대[臥龍燭臺]는 지

사진1) 목제쌍용문촛대[木製雙龍文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9~19.3cm, 높이 70~71.3cm// 서울역사박물관
 사진2) 놋쇠와룡촛대[鎳製臥龍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1.5cm, 높이 88cm// 온양민속박물관
 사진3) 놋쇠쌍촛대[鎳製雙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2.5cm, 높이 50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4)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1.7cm, 높이 38cm// 국립민속박물관

존으로서의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구슬을 꿰 연주(聯珠) 모양의 촛대 기둥[竿柱]이 용이 서린 형상을 추상화한 왕권의 상징인 썸이다. 가정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쌍촛대에 촛불을 켜며, 조상 신령을 일깨우고 후손의 마음 속 염원을 환기시키는 상징의 빛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진 5

간혹 집안에 조상의 사당이 없거나 제관(祭官)이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감모여재도(感慕如左圖)’라고 하여 두루마리 방식의 사당 그림을 펼쳐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이 감모여재도는 ‘사당도(祠堂圖)’라고도 하는데, 두꺼운 종이에 그린 두루마리식 그림으로 사당과 제사상을 그렸고 또한 지방(紙榜)을 붙이도록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위패가 놓여질 공간이다. 위패 앞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이나 여러 제기(祭器)인 향, 향합, 촛대 한 쌍, 술잔 등으로 제사상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당 주변에는 소나무나 꽃, 새, 평화롭게 노니는 물고기 등으로 장식하여 실제 사당의 모습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꽃은 연꽃과 모란을 도식화한 상태로 그렸고, 제사상에는 석류·유자·가지·포도·불수감(佛手柑) 등 길상적(吉相的)인 과일을 씨가 보이도록 그려 자손번창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동식 사당의 역할을 하는 ‘감모여재도’는 타지에서도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려는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KEA



사진 6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Leeum), 온양민속박물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5) 목제해태형촛대[木製獬豸形燭臺]// 조선시대// 길이 34cm, 높이 24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6) 백자죽절기등쌍촛대[白磁竹節柱雙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9.6~10.4cm, 높이 24.5~24.6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평생도(平生圖) 가운데 회혼례(回婚禮) 부분 그림//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사진8) 화장그림[火葬圖]//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사진9) 감모여재도[感慕如左圖]//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